

# 學校 給食에 對한 私見

成 耆 亢

文敎部 大學行政課 事務官  
前 文敎部 給食 擔當官

우리는 給食이라는 用語를 무의식 중에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있다. 이러한 글자는 2,000여 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를 살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給食의 「給」은 實事字의 「糸」와 모들함字的 「合」으로 조직되었다. 糸의 古字는 (糸)로서 竪타래의 형태이고, 合의 古字는 (合)으로 위의 (△)은 集의 古字로서 다수인을 뜻하고, 아래의 (冂)은 口의 형태이다. 卽, 合은 여러 사람의 입을 모은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給의 글자는 실을 모아 이어서 길게 한다는 뜻이다. 「食」은 옛날에는 (食) 이와 같이 쓰였다. (食)은 集의 뜻이고, (食)은 그릇 속의 곡식 낱알이 들어 있는 형태이고, (食)은 化字의 古字로서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食字는 이 三字가 모여서 된 字이기 때문에 이를 풀이해 보면, 그릇 속의 곡식을 식품으로 변화시켜 먹는다는 뜻이 된다.

결국 給食이란 뜻은 여러 가지 곡식을 식품으로 조화시켜 먹음으로 해서 건강이 유지되고 장수한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곧 給食이란 먹어야 건강해지고 건강해야 장수한다는 소박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日常生活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生과 직결되는 食生活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한다고 의식하느니 보다는 구미에 의해서 식품

이 선택되고 먹는다. 결국 이러한 것은 선천적인 생리적 욕구와 후천적인 인위적 습관의 차이에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能率과 合理性을 추구하는 현 사회에서 最小의 경비로 最大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食生活의 개선이나, 合理的 食습관의 형성이 다른 어느 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습관 형성에 빨리 순응할 수 있는 연령층인 國民學校의 學校 給食이 오늘날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學校 給食은 지금부터 180年前에 시작되었다. 180年前이라면 우리 나라에서는 珍山事件 辛亥敎難 등으로 天主教의 탄압이 극심하던 李氏朝鮮 正祖 때이다. 이때 독일의 뮌헨市에서는 빈곤한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學校에서 점심을 제공한 것이 동기가 되어 學校 給食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制度는 그 후 영국·오란다·프랑스·스위스 順으로 확대되어 구라파 각국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70年前에 잉여농산물로 인한 부녀자의 취업대책의 하나로 學校 給食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年 유니세프에서 전제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무튼 공복의 충만의 手段으로 실시하게 된 學校 給食은 당초 의도하였던 기대 외에 아동의 건강에 두드러지게 효과가 큰 것이 발견되어 다음 표와 같은 발전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점차

학 교 급 식 발 전 과 정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단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자 신 적 구 제 (빈곤 아동)	· 공복의 중단	① 의원 또는 자선 단체 ② 수혜자 무상		① 빈곤 아동 ② 영양 불량아동 ③ 신체 허약아
보 충 급 식	① 공복의 중단 ② 영양 보충	· 국고보조	· 장려규정	· 건아동
완 전 급 식	③ 학교 교육 활동으로서 실시	· 수혜자 유상	· 독립법제정	

발달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學校 給食은 현실앞에 무엇인가 뚫리지 않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어 시행의 손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學校 給食을 실시해온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구호의 성격에서 맴돌 뿐 도시 합리화 할줄도 모르고, 하려는 의욕보다는 "과연 될 것인가" 하고 주저가 앞서는 상 싶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學校 給食을 살펴 보면 대체로 3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 하나가 도서벽지를 위시한 일반 지역에서 무상 또는 자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빵 급식이고, 다른 하나는 都市 내의 國民學校에서 실시되는 시범 급식이고, 또 다른 것이 농어촌의 國民學校에서 시도되고 있는 자활 급식(실험사업)이다.

첫째의 제빵 급식은 의원양곡(소맥분·분유·식유)으로 食品을 조리하여 給食시키는 한 방편으로 시작된 것이나 의원의 종식과 더불어 이 제빵 급식의 실시 여부는 심각해 졌다. 제빵 급식을 포함한 學校 給食의 全面的 지속 여부에 대하여 검토되던 중, 만일 이를 中斷했을 때의 문제점으로서 ①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을 國內外에 과시하고 있는 이때, 의원중단과 때를 같이 하여 무상 급식을 全面的으로 中斷하는 것은 "모순의 露星"이라는 비난이 야기될 수도 있고, ② 給食 중단에 따른 아동보건 정책에 차질이 있을 경우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등이 지적되어, 이를 중단하느니 보다는 체위향상과 식생활 개선 면에서 적극 장려하기로 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① 극빈 아동의 열등의식 조장 ② 아동들의 점심 내용으로서

의 미흡 ③ 수입양곡(소맥분)의 의존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술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강구되어야 하겠다.

두번째의 都市 內의 示範 給食은 당시 문예체육국에서 발표한 "급식 시범학교 설치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 사회와의 협조에 의한 급식 시범학교를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현 구호 급식을 영양 급식으로 개선하여 급식 본래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초(1968年)에 17개 국민학교에서 시작 된 것이 17年 동안 4개가 늘어 1975年에 전국적으로 21개 국민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 2,3년 전까지 이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설치된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국을 끄리는 등 식품을 조리(거이 틀에 박힌 식단으로)하여 급식비를 낸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급하고 교육의 활동 범주에서 도외시화 하는 경향이 있어 시도한 시범 급식은 아동들의 건강이나 사회의 봉사에 아무런 가치를 불러 이르지 못한 까닭에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어 점차적으로 보급시킨다면 당초의 계획과 오늘의 결과에는 큰 차질을 초래하게 한 것이다.

세번째의 농어촌 지역의 自活 給食(實驗事業)은 UNDP의 계획에 의한 FAC의 영양 전문가 모나·에이취·도스氏가 학교 급식 고문관으로 부임한 후 시도된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의 농촌·어촌·산촌 등의 대표지역에 자립할 수 있는 學校 給食 및 營養教育의 실험사업을 전개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과, 학교를 통한 영

양교육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여 國民學校 아동들에게 學校給食과 營養教育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자활 급식 학교는 당초 1972년에 남곡국민학교(경기도 용인군)와 운대국민학교(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시작하였다. 이것이 1973년에 9개교, 1974년에 11개교, 금년에 다시 11개교가 증설되어 33개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자활 급식은 과거에 양곡을 배정하고, 예산을 영달하면 자동적으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행정일변도의 운영시책에서 교육을 통한 지도를 겸행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매년 1~2회에 걸쳐 학교장 또는 행정 실무자의 연수회를 개최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意義, 運營方法, 營養教育, 食品 및 生産管理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등 현장 연수도 겸하였다.

이 연수회는 평가 접수를 내어 근무성적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실무자들의 수강태도가 진지하였으며, 현장 견학에 있어서 성공실패를 굳이 알리고 노력하는 모습은 學校給食에 밝은 전망을 엿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연수회가 한 날 연례행사로 운영되지 않는 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아무튼 실험사업으로 실시하는 자활 급식은 學校給食과 營養教育의 最適의 방법을 모색하여 自活하는데 있느니 만큼 이 척도를 하루 빨리 찾아야 하겠다.

이 自活의 척도를 ① 생산활동의 과실소득으로 하든지,

② 생산활동이나 급식활동을 학교 급식과 영양교육의 동기유발 수단으로 하여 학부모의 참여로 하든지,

③ 전자의 활동 외에 정부의 일부 지원이 불가피 하다면지 간에 이를 찾는데 치밀하고 성실하게 힘써야 할 것이다.

食糧消費政策을 뒷받침한다는 國家的 見地에서나 健康增進을 도모한다는 營養의 見地에서나 生産하고 實踐한다는 教育的 見地에서나 다같이 學校給食을 再認識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施策面에 있어서는 귀찮은 存在라는 先入感으로 順位를 미루지 마라야 할 것이며 運營과 指導面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부단한 연구 그리고 현장과 시책에 일체감 있는 지도를 호소하고 싶다.

## 教 育 維 新

民  
族  
中  
興

精神革命의 旗手가 되자

地域社會의 頭腦가 되자

祖國統一의 先鋒이 되자